

한국판 완벽주의-탁월주의 척도(SCOPE) 타당화 연구*

신 용 우 김 민 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

교수

본 연구는 완벽주의(완벽함 추구)와 탁월주의(탁월함 추구)를 구별하기 위해 Gaudreau와 Shellenberg(2018)가 개발한 Scale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SCOPE)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표본 1($n=200$)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본 2($n=200$)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수렴-변별 타당도 및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중 임의로 100명을 선정하여 4주 후 K-SCOPE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탁월주의-완벽주의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2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완벽주의 척도들과의 상관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탁월주의-완벽주의가 개념적으로 구별됨이 나타났으며(수렴/변별 타당도), 유능성 욕구, 자존감, 삶의 만족도, 우울 척도와와의 상관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두 개념이 기능적으로도 변별됨이 확인되었다(준거 관련 타당도). 탁월주의는 완벽주의에 비해 더 적응적이었고, 완벽주의는 탁월주의에 비해 더 부적응적이었다. 그리고 K-SCOPE의 내적일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도 또한 양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완벽주의, 탁월주의, 완벽함 추구, 탁월함 추구, SCOPE

* 본 연구는 신용우(2024)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판 완벽주의-탁월주의 척도(SCOPE) 타당화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02-584-6851

E-mail: pseudo@kc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한 성취와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완벽해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최윤희, 정남운, 2020). 이는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Curran과 Hill(2019)은 4만여 명의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학생들의 자료를 활용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지난 27년간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수준이 선형적으로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 수 없는 목표이기에, 완벽에 대한 개인 내적 혹은 사회적 요구는 개인에게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우울증과 스트레스(Cheng, 2001), 강박적 행동(Rhéaume et al., 1995), 불안(Antony et al., 1998)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특성의 설명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완벽주의의 부적응성을 보여주는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완벽주의를 단일차원으로 취급하였다(Burns, 1980; Hollender, 1965; Horney, 1950). 하지만 이후 완벽주의에 대한 임상적 관찰이 축적되면서 완벽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변화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 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 여러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 도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Frost 등(1990)이 개발한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과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MPS) 그리고 Slaney와 Johnson(1992)이 개발하고 Slaney 등(2001)이 개정한 Almost Perfect Scale-Revised(APS-R)이 있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 특성과 발달적 근

원에 근거하여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FMPS를 개발하였다. FMPS의 하위요인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을 반영하는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s [PS]),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 [CM]), 자신의 수행의 질에 대한 의심을 반영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 [DA]), 부모가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지각을 반영하는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 [PE]), 부모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지각을 반영하는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 [PC]), 질서와 정리 정돈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조직화(Organization [O])가 있다(김윤희, 서수균, 2008). 반면 Hewitt와 Flett(1991)은 대인관계적 근원과 방향에 따라 완벽주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SOP]), 중요한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OOP]),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며,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PP])로 나누었다(이정운, 조영아, 2001). Slaney와 Johnson(1992)은 부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질서, 관계 어려움, 꾸물거림, 불안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Almost Perfect Scale(APS)를 개발하였다. 이 중 기준/질서는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고, 나머지 세 하위척도들은 부적응적 측

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관계 어려움, 꾸물거림, 불안 요인이 완벽주의에 특정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Slaney 등(2001)은 APS를 개정하여 높은 기준(High Standards), 질서(Order), 불일치(Discrepancy)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APS-R를 만들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도구가 개발되면서 이후 이 측정 도구를 활용한 완벽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완벽주의 척도들의 하위요인별 심리적 적응성과 부적응성이 구별됨이 발견되었고, 이는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이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다. 예를 들어 Frost 등(1993)은 FMPS와 HMPS의 하위차원들을 합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요인 구조가 명확히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요인에는 긍정적 성취 욕구(Positive Striving Need)라 이름 붙이고, FMPS의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를 포함시켰다.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요인에는 부적응적 평가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라 이름 붙이고,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포함시켰다.

한편 Dunkley와 Blankstein(2000)은 완벽주의를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PSP])와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on Concerns Perfectionism [ECP])로 나누고, 개인기준 완벽주의에는 개인적 기준, 자기지향 완벽주의 요인을, 평가염려 완벽주의에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포함시켰다.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후 연구들에서 정적 정서, 학업 성취도, 높은 자존감, 적극적 대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정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담, 김창대, 2021; Stoeber & Otto, 2006).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해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후 연구들에서 우울, 불안, 학업 및 직업적 부적응, 사회적 소외,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소담, 김창대, 2021; Klibert et al., 2005; Ocampo et al., 2020). 즉,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들은 심리적 적응성/부적응성이라는 2차원의 큰 틀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만족한다고(Campbell & Paula, 2002) 알려진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이기보다 오히려 적응적 유익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적응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적응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포함한 적응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적응성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우울이나 다른 심리적 부적응들과 정적상관을 가진다는 연구들(예, Downey & Chang, 2007; Hewitt & Flett, 1991, 1993),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들(예, Clara et al., 2007; Gilbert et al., 2006) 그리고 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간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예, Chang et al., 2004; Molnar et al., 2006)이 혼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완벽주의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적응

적 완벽주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상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진 등, 2019).

그리고 이런 비일관된 연구결과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정소담, 김창대, 2021).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로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적응상의 문제는 그들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거나(Blasberg et al., 2016),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일종의 취약성으로서 스트레스 사건이나 일상생활의 혼란 등의 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우울과 같은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Flett et al., 1995) 설명하기도 한다. 그 밖의 다른 학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수준에 따라 개인기준 완벽주의 차원과 우울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나(Klibert et al., 2005; Stoeber & Otto, 2006),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을 각각 반영하는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Campbell & Paula, 2002; DiBartolo et al., 2004).

반면 일군의 학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말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Blasberg et al., 2016; Gaudreau, 2019; Greenspan, 2000; Wade, 2017). Greenspan(2000)은 건강한, 즉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표현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는 완벽한 수행이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며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완벽주의는 건강하지 못한 성격특질로서 잘하고 뛰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Greenspan, 2000). Blasberg 등(2016) 또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잘하고 뛰어나고자 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

을 추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들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완벽주의와 거의 관련이 없으며, 적응적 완벽주의로 여겨지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완벽주의적 개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극단적인 성향과는 반대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형태의 성실한 성취 추구로 더 잘 개념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응적일 수 있음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적응성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기준 혹은 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비일관적 연구결과는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도구의 개인기준 문항들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Blasberg et al., 2016; Flett et al., 1991; Gaudreau et al., 2022).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Blasberg 등(2016)은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FMPS와 APS-R 척도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완벽주의적 색채가 더 묻어나도록 수정하여,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적응성에 대해서 원판과 수정판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APS-R의 “I have high expectations for myself.” 문항을 “I have expectations of perfection for myself.”로 바꾸었다. APS-R의 연구결과에서 완벽주의적 색채가 더 들어간 수정판은 우울, 불안, 수치심, 죄책감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존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APS-R의 원판은 긍정적 정

서, 자부심, 삶의 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FMPS에 대해서는 원판과 수정판의 심리적 적응성/부적응성과의 상관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FMPS는 원판 자체에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들에는 타월함 추구를 의미하는 문항과 완벽함 추구를 의미하는 문항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심리적 적응성에 대한 비일관적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도구가 완벽주의의 핵심적 개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에 대한 기존의 다차원적 접근이 완벽주의를 폭넓게 이해한 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이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완벽주의의 핵심적 특성을 모호하게 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Rhéaume et al., 1995). 예를 들어 FMPS의 부모의 기대와 비난은 완벽주의의 핵심적 특징이라기보다는 발달적 측면(혹은 발달적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완벽주의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조직화는 완벽주의와 연관성은 있지만 그 중심 개념이라 할 수는 없다(Slancy et al., 2001; Smith et al., 2022). 또한 완벽주의자가 흔히 실수에 대한 염려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완벽주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에 대한 염려는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등 다른 병리들과도 관련이 있다(Gaudreau et al., 2023). HMPS의 경우에도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모든 완벽주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특성은 아닐 수 있으며(Shafraan et al., 2002), 사회부과 완벽주의(SPP)는 완벽주의의 원인으로도 이해되어 질 수 있다(Slancy et al., 2001). APS-R의 경우 또한 예외는 아닌데, Flett과 Hewitt(2002)는 APS-R의 하위차원인 불일치 요인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성격특질로 보기 어려우며, 성격특질로서의 완벽주의의 핵심적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audreau(2021) 또한 완벽주의와 관련된 표현들과 완벽주의의 핵심적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가염려 완벽주의(예,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등)와 자기비판 등은 완벽주의의 인지적 표현이라 할 수 있고,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각각 완벽주의의 사회-행동적 표현(socio-behavioral expression)과 사회-인지적 표현(socio-cognitive expression)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다차원적 도구들이 오히려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더 혼란을 일으킨 점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완벽주의와 타월주의의 핵심적 개념을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 이에 대해 Gaudreau (2019)는 목표설정(goal-setting)과 목표추구(goal-striving)의 차원에서 완벽주의와 타월주의의 핵심적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타월주의는 “노력하고, 참여하며,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매우 높지만 달성 가능한 기준들을 목표로 세우고 추구하는 경향”이고, 완벽주의는 “끈질긴 방식으로 이상화되고, 결점이 없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들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경향”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을 보면 이미 타월주의와 완벽주의를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우 좋은(very good), 유능한(competent, capable), 뛰어난(accomplished), 매우 생산적인(very productive), 능숙한(skillful), 높은 수준의(high quality), 성공적인(successful), 대단한(great)인 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과도한(excessive, exaggerated, unreasonable), 불필요한(needless), 엄격한(strict), 지나치게/과도하게(overmuch, too much), 흠잡을 데 없는/흠 하나 없는(faultlessness, flawless, error-free, impeccable), 이상적인(ideal)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탁월주의와 완벽주의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의 난이도(difficulty)/속성(nature)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강도(intensity)/방식(manner)에서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이것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Gaudreau, 2019).

유사하지만 다른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완벽주의 연구에서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Gaudreau와 Shellenberg(2018)는 SCOPE를 개발하였다. SCOPE 척도는 탁월주의를 측정하는 11문항과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의 설정과 추구의 차원에서 두 개념이 정의되고 또한 구별되기에, 모든 문항의 전반부는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는”이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각 문항의 핵심적 표현들은 앞서 언급한 탁월주의와 완벽주의를 구별해주는 주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전반부의 11개의 탁월주의 문항들과 후반부의 11개의 완벽주의 문항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게 작성되어 있다. Gaudreau 등(2022)은 근래에 SCOPE 척도 타당화 연구와

함께 탁월주의-완벽주의의 구별에 대한 그들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8개의 표본(총 2,157명)을 대상으로 5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와 탁월주의가 개념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발달적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의 개념적 차이조차 아직 소개되지 않았고, 더불어 SCOPE 척도에 대한 번안과 타당화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COPE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탁월주의와 완벽주의가 개념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구별이 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적응성/부적응성에 대한 논란이 한 단계 더 진전되고, 또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대한 심리치료적 대안 개념으로서의 ‘적응적인’ 탁월주의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K-SCOPE의 수렴/변별 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을 통해 두 개념이 개념적으로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Gaudreau 등(2022)의 연구 절차를 따라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척도들과 K-SCOPE의 탁월주의/완벽주의 각각이 갖는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탁월주의와 완벽주의 두 개념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구별된다. 유사하기에, 탁월주의/완벽주의 모두 타 완벽주의 척도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구별되기에, 완벽주의는 탁월주의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관분석 결과보다는 서로의 영향을

배제한 채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Gaudreau et al., 2022).

다음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유능성 욕구 만족/좌절과 K-SCOPE의 타월주의/완벽주의 각각이 갖는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타월주의(타월함 추구)와 완벽주의(완벽함 추구)는 모두 성취 추구하고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타월주의자와 완벽주의자 각각이 경험하는 성취의 동기적 양상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성취동기는 성공추구동기와 실패회피동기로 특징 지어지는데(Atkinson, 1957), 타월주의는 주로 높은 성공추구동기에 의해 동기화되고, 완벽주의는 높은 성공추구동기와 더불어 높은 실패회피동기의 혼합된 양상으로 동기화될 것이다(Gaudreau et al., 2022; Hewitt et al., 2017). 그리고 이런 동기의 차이로 인해 타월주의는 유능성 욕구의 만족에, 완벽주의는 유능성 욕구의 만족과 좌절의 혼합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Covington & Müeller, 2001; Gaudreau et al., 2022).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능성 욕구의 만족/좌절과 더불어, 자존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타월주의/완벽주의 각각이 갖는 관련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 자존감, 우울은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들로서 완벽주의의 적응성/부적응성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이고, Gaudreau 등(2022)의 SCOPE 타당화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타월주의는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관련성을 우울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완벽주의는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거나 부적 관련성을 우울과는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 추측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SCOPE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척도 개발자 중 한 명인 Gaudreau에게 전자메일로(2022년 11월 15일)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위한 척도 사용에 승인을 받았다. 이후 번역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연구자가 영어로 된 원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상담학 전공 석사/박사 과정 대학원생 7명의 피드백을 받고 번역을 수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상담심리학 박사 1명이 역번역을 한 후 원척도의 영어 표현과 비교하였고, 이후 연구자와 함께 한글 번역본을 수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한글 번역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최종 번역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척도 개발자인 Gaudreau 등(2022)의 타당화 연구와의 표본 유사성을 위해 대학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400명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1이 200명,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표본 2가 200명이었다. 표본 1의 평균 나이는 22.6세($SD=3.2$)로서 남자는 105명(52.5%) 여자는 95명(47.5%)이었고, 표본 2의 평균 나이는 22.0세($SD=1.9$)로서 남자는 95명(47.5%) 여자는 105명(52.5%)이었다.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수

럼-변별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400명 중 1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4주 간격을 두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기술통계치, 내적일치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 및 다중회귀분석에는 SPSS 21과 FACTOR 12.04.05를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21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완벽주의-탁월주의 척도(SCOPE)

완벽주의와 탁월주의를 구별하기 위해 Gaudreau와 Shellenberg(2018)가 개발한 SCOPE(Scale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 22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적으로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탁월주의가 .93, 완벽주의가 .96로 나타났다.

Fros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이 개발한 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한국판 척도(현진원, 1992)를 사용하였다. 6개의 하위요인 35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약형 FMPS(Cox et al., 2002)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인적 기준은 .77, 실수에 대한 염려는 .83, 수행에 대한 의심은 .74, 부모지각은 .81, 조직화는 .85로 나타났다.

Hewitt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

완벽주의 다차원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HMPS(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한국판 척도(한기연, 1993)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 45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audreau 등(2022)이 SCOPE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HMPS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축약형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5개 문항(Cox et al., 2002), 사회부과 완벽주의 5개 문항(Cox et al., 2002), 타인지향 완벽주의 5개 문항(Hewitt et al., 2008)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88,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8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89로 나타났다.

완벽성향 척도(APS-R)

부정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laney와 Johnson(1992)이 개발하고 Slaney 등(2001)이 개정한 APS-R(Almost Perfect Scale-Revised)의 한국판 척도(김수연, 2005)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 23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Gaudreau 등(2022)은 SCOPE 타당화 연구에서 APS-R의 불일치 척도만을 사용하였는데, 12개 문항 중 부정정서 표현을 담고 있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한(Flett et al., 2016) 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좌절척도(BPNSFS)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을 측정하기 위해 Chen 등(2015)이 개발한 BPNSFS(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scale)의 한국판 척도(이진현, 2016)를 사용하였다. 6개의 하위요인 24개의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욕구의 만족/좌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Gaudreau 등(2022)은 SCOPE 타당화 연구에서 유능성 만족/좌절 하위척도 8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유능감 만족이 .92, 유능감 좌절이 .91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RSE)

자존감의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이 개발한 RSE(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한국판 척도(이훈진, 원호택, 1995)를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한국판 척도(조명한, 차경호, 1998)를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적으로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CES-D)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의 한국판 척도(전경구 등, 2001)를 사용하였다. 20개의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1점=극히 드물게[1일 이하], 4점=거의 대부분[5-7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1은 대학생 200명(남자 105명, 여자 9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6세($SD=3.2$)이다.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양호한 값을 가짐이 확인되었으며 왜도 및 첨도 또한 $|2|$ 이내였기에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원척도의 2요인 구조를 기준으로 타월주의와 완벽주의 각각에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및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았다. 타월주의 11개 문항 중 7번 문항의 문항 삭제 시 내적일치도가 .922로 나타나 전체 내적일치도 .921보다 큰 값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미소하고 모든 문항의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5 이상으로 높으며 내적일치도 값도 양호하게 나와 타월주의 문항 전체를 요인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완벽주의 11개 모든 문항도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5 이상으로 높

으며 내적일치도 값도 양호하게 나와 완벽주의 문항 전체도 요인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KMO값은 .94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3693.078($p < 0.001$)로, 표본 1의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최대우도

법을 사용하였고, 타월주의와 완벽주의 두 요인은 서로 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인회전은 사각회적인 오블리민법을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 분산비율, 스크리도표, 요인부하량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N=200)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20	...완벽해지는 것이다.	.973	-.099	.002
18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다.	.905	.079	-.152
16	...결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903	-.195	.086
21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902	.033	-.026
13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760	.124	.083
19	...어려운 것들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다.	.677	.217	.043
17	...실수 없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624	.239	-.196
14	...대단한 일들을 완벽히 해내는 것이다.	.590	.260	.144
22	...완벽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다.	.565	.039	.360
12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498	.467	-.056
9	...탁월해지는 것이다.	-.023	.849	-.177
10	...매우 잘 수행하는 것이다.	.028	.832	-.091
2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071	.759	-.140
5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078	.752	.156
1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081	.722	-.021
8	...어려운 것들을 성공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027	.688	.089
6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248	.644	.080
3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196	.506	.258
11	...탁월해질 때까지 매우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179	.500	.143
7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다.	-.062	.498	.179
4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073	.400	.454
15	...언제나 특출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377	.185	.409

주.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유치가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요인의 수는 3개로 나타났는데, 요인 1은 11.915, 요인 2은 2.160 그리고 마지막 요인 3은 1.077의 고유치 값을 보였다. 이어서 분산비율은 요인 1이 51.796%, 요인 2가 9.083% 마지막 요인 3이 3.015%의 값을 보였고, 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의 비율은 63.89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크리도표 상에서는 요인 2와 요인 3사이에서 기울기의 체감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스크리도표 상의 적절한 요인의 개수는 2개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항별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패턴행렬 상에서 완벽주의는 15번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문항이 요인 1에 묶이고, 타월주의는 4번째 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이 요인 2에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번째와 15번째 문항은 모두 요인 3에 묶여 있었다. 참고로 구조행렬 상에서는 완벽주의의 11개의 모든 문항이 요인 1에, 타월주의의 4번째 문항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이 요인 2에 묶여 있었다. 추가로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이때는 완벽주의의 11개 문항 모두가 요인 1로, 타월주의의 11개 문항 모두가 요인 2로 묶였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3개이지만 스크리도표에서는 적절한 요인의 개수가 2개로 나타나고, 그리고 요인 3에 묶여 있는 문항이 오직 4번과 15번 문항이며, 원칙도 저작자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요인 개수는 2개로 나타났음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의 개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덧붙여서, FACTOR 12.04.05를 사용하여 parallel analysis로 분석하였을 때도 요인 수는 2개로 나타났다. 평행분석은 표본자료와 무선자료의 고유값을 비교하여 요인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고유값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기존의 다른 방법들보다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 근거를 지니며 경험적으로도 요인의 개수를 더 정확히 추정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상돈, 장승민, 2017). 평행분석 결과 1개 요인일 경우 실제 데이터의 eigenvalue가 무선 데이터의 eigenvalue 보다 컸고 2개 요인일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의 eigenvalue가 컸으나 3개 요인이 되면 무선 데이터의 eigenvalue 값이 커져, 2개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행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거할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항 제거의 기준은 공통성이 .40이하이거나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가 .10이하인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총 4개로 나타났는데, 7번 문항은 공통성이 .296으로 나타나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4번, 12번, 15번 문항은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가 .10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총 4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후의 최종적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인 요인의 개수는 2개이며 총 4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요인 1의 고유치는 10.20이며 53.93% 만큼의 분산을 설명한다. 요인 2의 고유치는 2.03이며

표 2. 평행분석 결과 (N=200)

Number of factor	Real-date eigenvalue	Mean of random eigenvalues	95 percentile of random eigenvalues
1	11.915	1.652	1.767
2	2.160	1.537	1.617
3	1.077	1.451	1.519
4	0.926	1.375	1.434
5	0.697	1.307	1.359

표 3.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N=200)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20	...완벽해지는 것이다.	.990	-.115
16	...결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927	-.184
21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900	.022
18	...완벽함을 이루는 것이다.	.875	.043
13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759	.154
19	...어려운 것들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다.	.670	.239
22	...완벽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다.	.613	.125
17	...실수 없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588	.193
14	...대단한 일들을 완벽히 해내는 것이다.	.586	.320
9	...탁월해지는 것이다.	-.079	.820
10	...매우 잘 수행하는 것이다.	-.014	.819
5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085	.800
8	...어려운 것들을 성공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001	.742
2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023	.737
1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051	.728
6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223	.694
3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207	.590
11	...탁월해질 때까지 매우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184	.532
고유치		10.20	2.03
설명된 분산 비율		53.93	10.24
누적 분산비율		53.93	64.17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92	.95

주.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10.24% 만큼의 분산을 설명한다.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총 비율은 64.17%이다. 요인별 묶인 문항들을 보면 완벽주의 9개 문항이 요인 1에 묶였고, 탁월주의 9개 문항이

요인 2에 묶였다. 따라서 요인 1을 완벽주의로, 요인 2를 탁월주의로 명명하였다. 또한 4개의 문항을 삭제한 후의 내적일치도는 완벽주의가 .92, 탁월주의가 .95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2는 대학생 200명(남자 95명, 여자 10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0세($SD=1.9$)이다.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양호한 값을 가짐이 확인되었으며 왜도 및 첨도 또한 $|2|$ 이내였기에 자료가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PSS 21을 이용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다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였다(Mardia's coefficient of multivariate kurtosis=446.815, $p<.05$). 따라서 다변량 정규성에 영향을 덜 받는 Bollen-Stine의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오영창 등, 2017).

표본 2를 대상으로 2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델 적합도 지수는 AMOS의 모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오차항 간의 상관을 설정하여 수정을 거친 최종값이다. 각각의 값을 살펴보면, 우선 CMIN 값은 표본 크기 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해당 값을 자유로도 나눈 값이 <3 일 때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모형에서 $CMIN/df$ 는 2.846으로 나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RMSEA는 .096으로 나왔으며 이는 보통의 적

합도에 해당되고, CFI와 TLI는 각각 .928와 .913으로 나왔으며 이는 좋은 적합도에 해당한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타월주의 9문항과 완벽주의 9문항, 총 18문항 모두 표준화계수가 .5이상이고, C.R.값은 1.96이상이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척도의 요인 구조가 본 자료에도 잘 부합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문항에 대한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타월주의 9개 문항의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735~.838의 값을 보이며, 타월주의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927을, 문항 삭제 시 내적일치도는 .915~.922를 나타내었다. 완벽주의 9개 문항의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은 .794~.912의 값을 보이며, 완벽주의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956을, 문항 삭제 시 내적일치도는 .948~.955의 값을 보였다. 타월주의와 완벽주의 모든 문항의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5이상으로 높으며 내적일치도 값도 .900이상으로 높게 나왔기에, 18개 문항을 K-SCOPE 척도의 최종문항으로 확정하였다.

타당도 분석

K-SCOPE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의 모형 적합도 지수 (N=200)

모형	CMIN	df	CMIN/df	RMSEA(90% CI)	CFI	TLI
연구모형	361.456	127	2.846	.096(.085~.108)	.928	.913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200)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C.R.	p-value
탁월주의	11	1.000		.708		
	10	1.076	.102	.779	10.533	***
	9	.970	.102	.702	9.495	***
	8	1.048	.111	.695	9.408	***
	6	1.209	.106	.848	11.436	***
	5	.876	.096	.671	9.098	***
	3	1.223	.120	.751	10.162	***
	2	1.120	.101	.820	11.080	***
	1	1.170	.103	.841	11.350	***
완벽주의	13	1.000		.873		
	14	.840	.051	.856	16.589	***
	16	.992	.066	.815	15.115	***
	17	.908	.072	.797	12.562	***
	18	1.048	.059	.888	17.840	***
	19	.858	.064	.846	13.462	***
	20	1.046	.061	.872	17.227	***
	21	.914	.052	.881	17.575	***
	22	.871	.063	.770	13.758	***

와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6에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에서 우선 탁월주의와 완벽주의는 서로 $.673(p < .01)$ 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탁월주의는 FMPS의 부모의 기대/비난,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APS-R의 불일치 척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타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척도와 $.140 \sim .560$ 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완벽주의는 FMPS의 부모의 기대/비난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와 $.159 \sim .746$ 의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탁월주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에 속하는 FMPS의 개인적 기준 하위척도와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각각 $.158(p < .05)$ 과 $.136(p < .05)$ 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완벽주의는 $.493(p < .001)$ 과 $.658(p < .001)$ 로 탁월주의보다는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탁월주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차원으로 알려져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일치 척도와 관련성이 없거나 부적 관련성을 보인 반면, 완벽주의는 모두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K-SCOPE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

표 6. K-SCOPE와 타 완벽주의 척도와의 상관분석 (N=200)

	타월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673**	1
F-개인적 기준	.475**	.595**
F-실수에 대한 염려	.140*	.386**
F-수행에 대한 의심	.207**	.349**
F-부모의 기대/비난	-.060	.119
F-조직화	.351**	.421**
H-자기지향 완벽주의	.560**	.746**
H-타인지향 완벽주의	.358**	.572**
H-사회부과 완벽주의	.133	.390**
A-불일치	.017	.159*

주. * $p < .05$, ** $p < .01$

주. F=FMPS, H=HMPS, A=APS-R

하기 위해, 유능감 만족/좌절, 자존감, 삶의 만족도, 우울 척도와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8에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에서 타월주의는 유능감 만족,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표 8. K-SCOPE와 타 준거 척도와의 상관분석 (N=200)

	타월주의	완벽주의
유능감(만족)	.332***	.269***
유능감(좌절)	.016	.204**
자존감	.142*	-.012
삶의 만족도	.177*	.095
우울	-.052	.110

주. * $p < .05$, ** $p < .01$

표 7. K-SCOPE와 타 완벽주의 척도와의 다중 회귀분석 (N=200)

종속변수	타월주의		완벽주의		R^2	F
	B	β	B	β		
F-개인적 기준	.146	.158*	.291	.493***	.369	57.498***
F-실수에 대한 염려	-.188	-.184*	.330	.505***	.169	20.054***
F-수행에 대한 의심	-.030	-.029	.241	.367***	.122	13.688***
F-부모의 기대/비난	-.228	-.233*	.168	.268**	.046	4.738**
F-조직화	.140	.136	.220	.334***	.188	22.863***
H-자기지향 완벽주의	.211	.136*	.651	.658***	.568	129.306***
H-타인지향 완벽주의	-.024	-.017	.527	.582***	.327	47.839***
H-사회부과 완벽주의	-.332	-.200*	.551	.518***	.175	20.929***
A-불일치	-.253	-.145	.281	.252**	.038	3.842*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B=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F=FMPS, H=HMPS, A=APS-R

주. VIF=1.705

표 9. K-SCOPE와 타 준거 척도와의 다중 회귀분석

(N=200)

종속변수	탁월주의		완벽주의		R ²	F
	B	β	B	β		
유능감(만족)	.281	.272**	.062	.094	.116	12.881***
유능감(좌절)	-.233	-.197*	.250	.330***	.064	6.771**
자존감	.227	.255**	-.100	-.175	.038	3.911*
삶의 만족도	.298	.197*	-.030	-.031	.032	3.251*
우울	-.150	-.209**	.112	.244*	.038	3.860*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B=비표준화계수, β=표준화계수

주. VIF=1.705

상관을 보였지만, 완벽주의는 유능감 만족과만 정적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탁월주의는 유능감 좌절,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완벽주의는 유능감 좌절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탁월주의는 유능감 만족,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관련성을 그리고 유능감 좌절과 우울과는 부적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벽주의는 유능감 좌절, 우울과 정적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사 신뢰도 분석

1차 검사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1차 조사 참가자 중 100명에게 K-SCOPE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검사와 2차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재검사 신뢰도)는 탁월주의 .758($p < .01$), 완벽주의 .723($p < .01$)로 나타나 양호한 값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탁월주의와 완벽주의를 구별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된 탁월주의-완벽주의 척도(SCOPE)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 1, 표본 2, 각 200명씩 400명의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표본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표본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변별 타당도 분석 그리고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 조사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1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100명에게 K-SCOPE 척도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원척도의 저자가 제시한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분산비율, 스크리도표, 요인부하량 및 평행분석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통성과 요인 간

부하량 차이를 기준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어서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탁월주의의 9개 문항과 완벽주의의 9개 문항의 표준화계수를 검토함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척도의 요인구조가 표본 2에서도 잘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삭제한 문항들은 총 4개로, 탁월주의의 두 문항(4번, 7번)과 완벽주의의 두 문항(12번, 15번)이 삭제되었다. 7번 문항은 공통성이 .40을 넘지 못하였고, 나머지 세 개의 문항들은 요인 간의 부하량 차이가 .10을 넘지 않았다. 해당 문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4번 문항은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이고, 7번 문항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다.”이고, 12번 문항은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이며, 마지막 15번 문항은 “...언제나 특출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 번역 시, 원척도에서 사용한 단어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자 하였으며, 번역-역번역 과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이한 언어에서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으며, 문화에 따라 특정 단어와 문장이 상기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삭제된 4개의 문항은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다소 모호하게 해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매우”와 “특출나게”가 구분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척도의 문항이 목표하는 바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완벽한 성과”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복잡한 표현 때문에 탁월함 추구를 상기하기에 부적절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K-SCOPE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에서 탁월주의와 완벽주의 모두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 도구들의 여러 하위척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완벽주의가 탁월주의보다 더 높았다. 완벽주의와 탁월주의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특징이 있기에 상관분석만으로 두 개념의 변별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Gaudreau et al.,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 타당화 절차를 따라 상관분석과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에서 두 개념의 변별성은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탁월주의와 완벽주의 모두 개인기준 완벽주의에 속하는 하위척도들(ex. 개인적 기준, 자가지향 완벽주의)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완벽주의가 더 컸으며, 이는 상관분석에서 보였던 차이보다 더 분명하였다. 또한 탁월주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측정 도구에서 부적응적 측면을 반영하는 하위척도들(ex.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일치)과 관련성이 없거나 부적관련성을 보인 반면, 완벽주의는 모든 부적응적 하위척도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탁월주의와 완벽주의 모두 높은 기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넘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탁월주의와 구별되고, 탁월주의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과는 관련성

이 없다는 두 개념의 개념적 차이에 관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K-SCOPE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K-SCOPE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에서 탁월주의는 유능감 만족,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완벽주의는 유능감 만족, 유능감 좌절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념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같이 실시하였고(Gaudreau et al., 2022), 회귀분석에서 두 개념의 기능적 변별성은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탁월주의는 유능감 만족,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관련성을 그리고 유능감 좌절과 우울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완벽주의는 유능감 좌절과 우울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탁월주의는 심리적 적응성을 나타내는 척도들과는 정적 관련성을 그리고 부적응성을 나타내는 척도들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완벽주의는 심리적 적응성을 나타내는 척도들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었고 부적응성을 나타내는 척도들과만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들은 탁월주의와 완벽주의가 기능적 수준에서도 구별되며, 탁월주의는 완벽주의보다 더 적응적이라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로써 K-SCOPE의 준거 관련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넷째, K-SCOPE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와 재검사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내적일치도는 총 세 번 검사하였는데(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 후) 모두 .90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1차 조사 이후 4주가 지난 시점에 검사한 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K-SCOPE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탁월주의와 완벽주의를 구별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된 SCOPE를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판 타당화를 한 것이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가 복잡해지고 완벽주의에 대한 평가도 연구자에 따라 그동안 많은 차이를 보여온 것이 현실이다(김윤희, 서수균, 2008). 이런 상황 가운데 완벽주의를 목표를 설정하고(goal-setting) 추구하는 방식(goal-striving)으로 정의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의 난이도(difficulty)/속성(nature)과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강도(intensity)/방식(manner)에서 정의한 Gaudreau(2019)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한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완벽주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의 정의적 속성에 대한 수렴적 이해와 통일된 개념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완벽주의 연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핵심이슈 중 하나는 소위 적응적 완벽주의라 일컫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심리적 적응성에 대한 비일관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SCOPE는 이 논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비일관적 연구결과는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개인기준 문항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Blasberg et al., 2016; Flett et al., 1991; Gaudreau et al., 2022), SCOPE는 이 둘을 구별해줄 수 있다. 탁월함

추구와 완벽함 추구의 구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완벽주의 연구가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하위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하위척도들은 FMPS의 개인적 기준(7문항),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15문항), APS-R의 높은기준(7문항)인데, 세 개의 척도 모두 타월함 추구를 의미하는 문항과 완벽함 추구를 의미하는 문항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APS-R의 높은기준 문항들은 대부분 타월주의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어 Almost Perfect Scale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FMPS에도 상당 부분 타월주의 문항들이 섞여 있으며, 그나마 세 개의 척도 중 HMPS가 완벽주의적 표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하위척도 사용의 문제점은 최근에 발표된 또 다른 SCOPE 타당화 연구에서도 나타났다(Tape et al., 2024). 이 연구에서의 SCOPE 하위척도와 FMPS(개인적 기준, 실수에 대한 염려) 그리고 APS-R(높은 기준, 불일치) 하위척도와의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 결과를 보면, 타월주의/완벽주의 모두 개인적 기준과 높은 기준 척도와 비슷한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실수에 대한 염려와 불일치 척도와의 관련성에서는 타월주의는 부적상관을 완벽주의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타월주의/완벽주의 모두 개인기준 완벽주의 하위척도들과 비슷한 정도의 정적 관련성을 보인 것에 대해 연구진은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개인기준 완벽

주의 하위척도들에 타월함 추구하고 완벽함 추구를 의미하는 문항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FMPS의 경우는 축약형을 사용하였고, APS-R은 불일치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측정도구가 완벽주의의 핵심적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점(Gaudreau, 2021; Rhéaume et al., 1995)과 개인기준 완벽주의 하위척도의 문항들에 타월함 추구하고 완벽함 추구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점(Blasberg et al., 2016; Flett et al., 1991; Gaudreau et al., 2022)은 기존의 완벽주의 측정도구로 상담현장에서 완벽주의를 정확히 구별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SCOPE는 완벽주의의 핵심적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월함 추구하고 완벽함 추구를 구별하고 있기에, 상담현장에서 완벽주의자를 더 정확히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완벽주의의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고 연구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K-SCOPE를 성인 일반으로 타당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성인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 등을 가지는 이질적인 집단인 데 반해,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특질을 지닌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K-SCOPE에 대한 교차 타당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Gaudreau 등(2022)은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의 측면에서도 타월주의가 완벽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성

취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성의 측면만을 검토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등에서의 성취 수준에서 두 그룹이 어떤 변별성을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탁월을 추구하는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성취의 수준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이제 더이상 ‘적응적’ 완벽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여서, 비록 아직 많은 학자들이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주의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큰 만큼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obinson et al., 2022).

셋째, 완벽주의는 그동안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성격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Shafran et al., 2002). 완벽주의가 성격적 특질이라는 것은 완벽주의자를 비완벽주의로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완벽주의자를 유사하지만 더 적응적인 탁월주의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더 유익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완벽주의와 탁월주의가 갖는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향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Gaudreau와 Shellenberg(2018)는 SCOPE를 개발하면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탁월함 추구하고 완벽함 추구의 표현들을 가지고 척도 문항들을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원 척도 문항에서 4개의 문항을 삭제하게 된 것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의 탁월함 추구하고 완벽함 추구 표현들의 차

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개발된 SCOPE를 소개하고 타당화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수연 (2005).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연구: 완벽성향 척도(APS-R)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오영창, 박은식, 윤경희 (201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대한 분석. 조사연구, 18(4), 87-103.
- 이정윤, 조영아 (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93-104.
- 이진현 (2016). 기본심리욕구 만족-좌절척도(BPNFS)의 한국 타당화 연구.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19). 완벽주의 연구 동향 및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 분야 주요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43-368.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임상돈, 장승민 (2017). 요인 개수 결정을 위한

- 평행분석의 정확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4), 441-475.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소담, 김창대 (2021).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추상적, 구체적 반복사고의 차별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2), 185-206.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집문당*.
- 최윤호, 정남운 (2020).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23-545.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tony, M. M., Purdon, C. L., Huta, V., & Swinson, R.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cross the anxiety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2), 1143-1154.
- Atkinson, J. W. (1957).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6), 359-372.
- Blasberg, J. S., Hewitt, P. L., Flett, G. L., Sheery, S. B., & Chen, C. (2016). The importance of item wo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measuring high standards versus measuring perfectionism and why it matter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4(7), 702-717.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1.
- Campbell, J. D., & Paula, A. D.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81-19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g, E. C., Watkins, A., & Banks, K. (2004). How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relate to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Testing a stress-mediation model in black and white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93-102.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Duriez, B., Lens, W., Matos, L., Mouratidis, A., Ryan, R. M., Sheldon, K. M., Soenens, B., Van Petegem, S., & Verstuyf, J.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heng, S. K. (2001).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3), 303-310.
- Clara, I. P., Cox, B. J., & Enns, M. W. (2007). Assessing self-critical perfectionism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3), 309-316.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Covington, M. V., & Müjeller, K. J. (2001).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An approach/avoidance reformul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157-176.
- Cox, B. J., Enns, M. W., & Clara, I. P. (2002).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erfectionism in clinically distressed and college student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14(3), 365-373.
- Curran, T., & Hill, A. P. (2019). Perfectionism is increasing over time: A meta-analysis of birth cohort differences from 1989 to 2016. *Psychological Bulletin*, 145(4), 410-429.
- DiBartolo, P. M., Frost, R. O., Chang, P., LaSota, M., & Grills, A. E. (2004).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tandards and psychopathology: The case for contingent self-wor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2(4), 237-25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owney, C. A., & Chang, E. C. (2007). Perfectionism and symptoms of eating disturbances in female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the role of negative affect and body dissatisfaction. *Eating Behaviors*, 8(4), 497-503.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5). Perfectionism,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diathesis-stress model. *Current Psychology*, 14(2), 112-137.
- Flett, G. L., Hewitt, P. L., & Mittelstaedt, W. M. (1991). Dysphoria and components of self-punitiveness: A re-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201-219.
- Flett, G. L., Mara, C. A., Hewitt, P. L., Sirois, F., & Molnar, D. S. (2016). How should discrepancy be assessed in perfectionism research? A psychometric analysis and proposed refinement of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4(7), 718-732.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M.,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udreau, P. (2019). On the distinction between

-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 A theory elaboration and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4(2), 197-215.
- Gaudreau, P. (2021). Separating the core definitional feature and the signature expressions of dispositional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10975.
- Gaudreau, P., Benoit, A., & Boileau, L. (2023). Questions, critical reflections, and advances with the model of excellencism and perfectionism: A call to action. In A. P. Hill (Eds.), *The psychology of perfectionism in sport, dance, and exercise* (pp. 377-398). Routledge.
- Gaudreau, P., & Schellenberg, B. (2018). *Scale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 (SCOPE)* <http://osf.io/y6jf5>
- Gaudreau, P., Schellenberg, B. J. I., Gareau, A., Kljajic, K., & Manoni-Millar, S. (2022). Because excellencism is more than good enough: On the need to distinguish the pursuit of excellence from the pursuit of perf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2(6), 1117-1145.
- Gilbert, P. P., Durrant, R. R., & McEwan, K. K. (2006).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forms and functions of self-criticism, and sensitivity to put-dow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299-1308.
- Greenspan, T. S. (2000). "Healthy perfectionism" is an oxymoron!: Reflections on the psychology of perfectionism and the sociology of scienc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4), 197-208.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Flett, G. L., & Mikail, S. F. (2017). *Perfectionism: A relational approach to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Guilford Press.
- Hewitt, P. L., Habke, A. M., Lee-Bag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71(2), 93-122.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Norton.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2), 141-156.
- Molnar, D. S., Reker, D. L., Culp, N. A., Sadava, S. W., & DeCourville, N. H. (2006). A mediated model of perfectionism, affect,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5), 482-500.

- Ocampo, A. C. G., Wang, L., Kiazad, K., Restubog, S. L. D., & Ashkanasy, N. M. (2020). The relentless pursuit of perfectionism: A review of perfectionism in the workplace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1*(2), 144-16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h eume, J., Freeston, M. H., Dugas, M. J., Letarte, H., & Ladouceur, R. (1995). Perfectionism,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7), 785-794.
- Robinson, A., Stasik-O'Brien, S., & Calamia, M. (2022). Toward a more perfect conceptualization of perfectionism: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Assessment, 29*(3), 385-39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 Slaney, R. B., & Johnson, D. G. (1992). *The almost perfec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3), 130-145.
- Smith, M. M., Sherry, S. B., Ge, S. Y. J., Hewitt, P. L., Flett, G. L., & Baggeley, D. L. (2022).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turns 30: A review of known knowns and known unknowns.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63*(1), 16-31.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 Tape, N., Dry, M., Monaghan, B., Tan, N., & Turnbull, D. (2024). The scale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 (SCOPE): An adolescent-based validation study for the measurement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41*(1), 3-11.
- Wade, T. D. (2017). Prevention of perfectionism in youth. In J. Stoeber (Eds.), *The psychology of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265-283). Routledge.

원 고 접 수 일 : 2024. 0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7. 18
게 재 결 정 일 : 2024. 08. 05

Validation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of Perfectionism-Excellencism (K-SCOPE)

Yong Woo Shin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aster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of Perfectionism and Excellencism (K-SCOP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00 college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samples, each consisting of 200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Sample 1, whi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Sample 2. Additionally, the scale was retested on 100 college students four weeks later. The results revealed a two-factor structure of excellence-perfectionism.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other scales indicated that excellencism and perfectionism are conceptually and functionally distinct. Lastly,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retest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Therefo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SCOPE were confirmed, and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xcellencism, perfectionism, pursuit of perfection, pursuit of excellence, SCOPE